

“방생으로 생명존중”... 새해 서원

양산불교연합회 방생대법회

뜻 생명에 자비를 부여하고,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자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 불교계가 나섰다.

양산불교연합회의 생명존중 방생대법회가 2월 9일 경주 감포 대왕암에서 봉행됐다.

회원 사찰과 신도들을 태운 8대의 버스가 감포 앞바다 대왕암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전 대중은 바닷가에 마련된 불단 앞에서 생명존중의 마음을 모았고 저마다의 원(願)을 간절히 발원하는 모습이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양산불교연합회 회장 반산 스님, 원효암 주지 남현 스님 전법도량 정도 스님을 비롯한 양산지역 대덕스님 10여명과 각 사찰 신도들이 대거 동참했다.

그간 양산불교연합회는 양산지역 소재 사찰 스님들이 모여 지역 차원의 행사와 법회를 봉행해 왔으나 이

번 방생대법회는 2014년 신년을 맞아 연합회의 단합과 결집을 약속하는 마당이 되어 그 의미가 깊다.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생명의 무질서를 타파하고 살아 숨 쉬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새해 서원의 아단법석이 된 셈이다.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회

2월 9일 경주 감포 대왕암서 지역 불교 화합 다짐도

장 반산 스님은 “불교의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살생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자들이 다 생명존중의 사상을 더 공고히 하고 포교 공덕을 지어야 한다”며 방생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원효암, 계원사, 통도사양산포교당, 원각사 등 총 8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하



양산불교연합회의 생명존중 방생대법회가 2월 9일 경주 감포 대왕암에서 봉행됐다.

여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방생에는 바다장어 약 1천 마리가 문무대왕릉 바다로 놓여졌다.

한편, 양산지역에는 조계종 사찰을 포함한 약 200여 개 사찰이 분포돼 있는데 이들 사찰 가운데 조계종 소속 사찰로 구성된 양산불교연합회 회원사찰은 4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사찰들은 2012년 3월 새로운

출범과 함께 경승실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양산 부산대법원에 매월 음력 초하루마다 떡 공양을 하며 불법홍포와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20여 사찰은 지역 내 포교와 전법을 위한 일에는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상생으로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

양산불교연합회장 반산 스님

양산불교연합회를 재출범시켰으며 초대회장 소임을 맡아 연합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진력하고 있는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사진)을 만났다. 그간 크고 작은 법회와 행사들

주관해 온 스님은 “실천적인 불교 활동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계획해 온 행사였다”며 방생 법회의 취지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범종단 차원의 행사인 한반도평화대회



가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지역규모의 활동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스님은 지역 내 포교와 전법을 위해 회원 사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반산 스님은 또 “연합회를 재출범시키면서 기존의 사립인 사찰들과 연계

화합의 양산불교연합회를 꾸리고자 했으나 좁혀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찰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양산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출가자로서, 신도들을 이끄는 승가로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연등축제기획위, 행사 일정 확정

4월 26일 구덕운동장서 봉축대법회 봉행

2014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가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구덕운동장과 용두산공원, 광복동 일원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부산 연등축제기획위원회(위원장 심산)는 봉축대법회, 연등 퍼레이드, 대회회향한마당 등으로 나누어 부산시민들과 불자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봉축대법회는 오후 4시 구덕종합운동장에서 △연등퍼레이드는 오후 8시~10시 부산대정동과 광복동 일원에서 △대회회향한마당은 오후 10시~10시 30분 용두산공원에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동제 형태로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봉행하던 봉축연등대법회를 구덕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축제의 마당에는 부산지역 불자들이 스님, 부산시장을 비롯한 각 단체 기관장 등 2만



2014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가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여 시민이 동참하는 연등축제의 한 마당을 열게 된다. 봉축연등대법회를 끝낸 참석자들은 구덕운동장을 출발해 국제시장, 근대역사박물관, 용두산공원, 광복로까지 이어지는 연등퍼레이드를 펼친다.

한편, 이날 거리를 밝힐 장엄물들은 불자들이 함께 다양한 형태로 장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며 총 300여 점의 장엄등이 각 사찰, 신행단체를 대면하게 된다.

또한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용두산공원에서 연등축제 개막 점등식을 개최하게 되며 이날 특설무대를 마련 축하공연과 함께 불꽃쇼를 선보이며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릴 광복로와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부산연등문화제와 전통문화체험, 전래놀이한마당 등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부스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부산 연등 축제 또한 서울과 같은 포스터와 표어를 사용하기로 의견 일치해 보였다.

부산연등축제 기획위원회는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지난 1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행사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시민대중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만등축제를 참관하는 등 부산연등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초기불교의 정진 계속되어야”

대한불교대학 2013 학년도 졸업식

초기불교 전문 교육기관인 대한불교대학(학장 마성)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한불교대학은 초기불교 학문의 보급 전파를 위한 전법사 및 불교지도자 양성과 수행자의 신행실수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故원각 스님에 의해 설립됐다.



2013년 갑작스런 학장 원각 스님의 입적 후, 비상 체제로 전환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불교대학은 어려움 속에서도 출석생과 사이버생 총 42명으로 구성된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셈이다.

학장 마성스님은 “오늘의 이 졸업식이 초기불교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석가산 대종사 명예학장, 증명법사 뉘나산포, 유계현 진주시의회 의장 등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거행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법회

군중 교구장 정우 스님 법사로

조계종 갓바위 선본사(주지 선본)는 갑오년 정월 약사재일을 맞아 2월 7일 법회를 열었다.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전 통도사 주지)을 법사로 한 이번 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우 스님은 “관념 속에 묻혀 살면서 내 인생은 어느 계절 속에 와서 지금 무엇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 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 왔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심과 원력으로 바른 서원과 발원을 세워 정진하고 경교한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기도 정진하여 마음으로 이웃에 나눔을 회향하기 바란다”고 설법했다.

이어 스님은 “정성어린 마음으로 도를 구하면 기쁨의 씨앗과 즐거움의 열매가 들어 있는 법”이라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 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생사의 바다에 ‘자비의 배’가 되세요”

통도사, 울원·강원 졸업식

영축총림 통도사는 2월 12일 울원과 강원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번 졸업식을 거행한 영축총림승가대학원은 제 8회 졸업생을, 통도사 승가대학은 제 57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졸업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지중 스님과 주지 원산 스님을 위시한 소임 스님들과 울주 중산해남 스님, 강주 지형현진 스님, 울원장 덕문 스님 등 강사 스님들이 졸업생들의 졸업을 지켜주며 울학승가대학원의 상원 스님 외 9명과 강원외 무진 스님 외 18명의 스님이 정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울주 스님은 졸업생들을 위한 훈사에서 “오늘 졸업에 맞는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새기고 계·정·혜 삼학을 바로 이행하여 자비심으로 중생구제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더불어 보살심을 베풀 때는 고루, 참되게 베풀 것이며 생사의 바다에 자비의 배를 띄우도록 원력을 세워 구경성불의 길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졸업생들에 당부했다. 강주 현진 스님도 훈사를 통해 “마음속에 바른 지표를 세워 그 지표에 위배됨 없는 불제



영축총림 통도사는 2월 12일 울원과 강원 졸업식을 봉행했다.

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는 총무원장상, 교육원장상을 비롯한 중단 차원의 상이 수여되기도 했으며 방장스

님상, 주지스님상, 전계사스님상, 울원장스님상, 승가대학장상 등 분야별 우수상이 수여되어 축하를 받았다.

김나영 객원기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관세음보살님과 좌우보처 해수관음보살님 육관음보살님 밀적조역 84제대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관음성전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염 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16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증님